

- ◆ 여려
- ◆ 가지화
- ◆ 학물질
- ◆ 약물또
- ◆ 는 술
- ◆ 이 급
- ◆ 만성
- ◆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한국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
- ◆ 은 A형, B형 또는 비A, 비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
- ◆ 한 급·만성 간염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급·만성 바
- ◆ 이러스성 간염의 치료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급성 바이러스性 간염의 치료

① 입원 치료

대부분의 급성 간염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입상증세나 검사소견에서 정도가 심한 경우나 환자의 나이가 많거나 다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한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

② 안정 및 운동

과거에는 재발이 되거나 만성간염으로 이행이 잘되기 때문에 운동을 금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근래의 보고에 의하면 급성기를 지나면 환자에게 점진적인 운동을 권하는 방향으로 치료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③ 식이요법

특별한 식이요법을 요하지는 있으나 고지방 음식은 피하고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④ 약물 투여

많은 약제가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약을 제외한 모든 약은 중단되어야 한다.

급성간염환자가 소양감이 심한 경우에는 cholestyramine이나 향하스타민제를 투여하며 구역이 심한 경우에는 항구토제를 사용하거나 phenothiazine 계통의 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acetaminophen을 투여할 수 있으며,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chloral hydrate나 fluragepam을 소량 사용할 수 있다.

인터페론투여로 저항력길러야 백신투여로 저항력길러야 간염바이러스증식억제 인간간염

비타민 제제는 다량 투여시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일 권장량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prothrombin time이 연장된 경우는 vitamine K를 투여한다.

부신피질호르몬의 투여는 일

시적으로 증세 호전 및 검사소견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재발률 및 만성간염으로의 환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격성간염의 경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몇몇 보고가 있었으나, 최근에 대조군을 사용한 치료 성적을 통해 보면 부신피질호르몬의 투여가 환자의 생존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CAH로 진단이 되면 많은 수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며 때로는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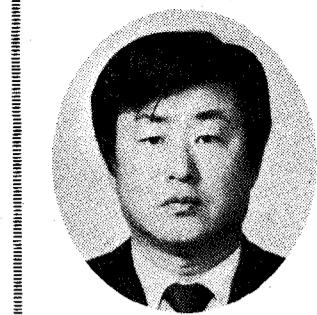
CAH의 활동기에는 급성간염에서와 같은 치료를 받게된다.

B형 간염 항원이 음성인 CAH 환자에게 부신피질 호르몬제제를 투여하여 60~80%의 환자에서 증상 및 조직학적인 호전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약 90%의 만성 간염이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보면 부신피질 호르몬, 항바이러스제 및 면역증진요법이 사용된다.

① 부신피질 호르몬

부신피질호르몬의 사용에는 아



文英明
<연세의대수교과>

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ARA-A와 같이 교대로 사용하여 ABeAg의 소실 감염력의 소실, 생화학 및 조직

肝炎의 치료

급·만성

매일 점진적인 적당한 운동하면 좋다

못함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급성간염의 경우는 간염의 경증을 막론하고 부신피질호르몬은 금하는 것이 좋다.

전격성 간염의 치료는 수액요법, 혼수상태에 따른 합병증의 치료, 저혈당증에 대한 치료, 출혈에 대한 치료 등 일반적인 보존요법을 시행하며 간의 재생을 통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백질 공급제 한 neomycin 또는 lactulose의 투여, vitamine K의 투여가 필요하게 된다. 교환 수혈이나 혈액투석등이 시도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만성 바이러스性 간염의 치료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 조직 검사를 통해 만성 지속성 간염(CPH)과 만성 활동성 간염(CAH)로 크게 나

직도 논쟁이 많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HBeAg의 소실이 늦어지고, 바이러스의 증식에 대한 표시자들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는 anti-HBe 양성인 환자에게 prednisolone을 투여하면 생화학적 검사 및 조직학적 검사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② 항바이러스 제제

HBeAg 양성인 환자에게 투여한다.

Adekin arabino side(Vidarabine, ARA-Α)는 바이러스의 DNA 증식을 억제하는데, 정맥주사로 투여하며, ABeAg의 소실 생화학적 및 조직학적 소견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arabino side monophosphate(ARA-MP) 개발되어 근육주사를 가능케 하여 외래에서 치료를 가능케 하였다.

Interferon을 사용하여 간

학적으로 병의 호전 등을 기대 할 수 있다.

③ 면역증진요법

회복기의 급성 B형 간염 환자의 입파구에서 추출한 Transfer factor의 투여, T임파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L-evamisole의 투여, BCG의 투여가 시도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급·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확실한 특효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면역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다. 간염 바이러스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수동면역 즉 백신을 투여하여 저항성을 길러야하겠다.

우리손으로 개발!

B型肝炎 인면역글로불린(HBIG)

해마비



주식
회사

녹십자

• 본사: 584-0131 (代) • 판매: 서울741-0131, 부산83-8977, 대구352-4911, 대전623-0131, 광주56-5781, 전주3-7310, 마산2-4991, 원주42-2759, 청주52-8661, 인천73-0132

한 우물을 파는 精誠이 技術의 深度를 더 해 갑니다.